

특허청, 인공지능 기술 진화에 맞춘 심사기준 마련 논의

- 인공지능 산업계 지재권 전문가로 이루어진 ‘AI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’ 발족 -
- 최신 인공지능 기술 동향을 반영한 인공지능 특허심사기준 개정 논의 본격화 -

특허청(청장 김완기)은 7. 22.(화) 14시, 특허청 서울사무소(서울 강남구)에서 ‘AI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’를 발족하고, 첫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.

특허청은 인공지능 기술의 부상과 변화에 따라 '20년 인공지능분야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'22년과 '23년 두 차례 개정한 바 있다.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인공지능, 온디바이스 인공지능(On-Device AI)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, 이러한 변화를 심사기준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

특허청은 벤처기업 등 산업계, 학계, 연구소에서 지재권을 담당하는 실무형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하고, 인공지능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심사기준 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.

첫 간담회에서는 △국내외 인공지능 특허출원 동향, △인공지능 관련 쟁점 판례 및 심사사례 등을 공유하고, 심사기준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. 아울러 △출원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도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.

특허청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9월까지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.

특허청 박재일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“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지식재산 제도 역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비되어야 한다”며 “이번 협의회가 현장과 정책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, 우리 기업의 인공지능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: AI 특허심사기준 개정 협의회 발족 및 간담회 개요

담당부서	디지털융합심사국	책임자	과 장	전범재 (042-481-5782)
	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	담당자	사무관	임민섭 (042-481-8216)

□ 배 경

- (목적) AI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AI 분야 심사기준 개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관련자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및 실무 논의

< 특허청-중기부 합동 벤처기업 간담회 中 관련 사항 >

- ▶ (일시 및 장소) '25.4.22.(화), 15:00~16:00, 벤처기업협회(서울 구로)
- ▶ (관련 내용) 특허청장, ①AI 특허심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에 공감, ②벤처기업협회 및 옛지 AI, 온디바이스 AI에 관심있는 기업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 제안

- (경과) 심사관으로 구성된 AI 심사기준 개정 TF 운영 및 개정 사례 발굴('25.5.~), 해외 심사기준 비교·검토('25.6.) 및 개정 협의회 구성('25.6.)
* (향후 일정) 실무논의(7~8월) → 개정안 도출(9월) → 최종검토·개정(10월)

□ 협의회 개요

- (일시 및 장소) '25년 7월 22일(화) 14시 / 서울사무소 대회의실(5층)
- (주요내용) 現 AI 심사기준 및 해외사례 검토 결과 공유, 민간 관점의 심사기준 개정 수요 발굴, AI 심사기준 개정 방향 공유 등
- (참석대상) 특허청 담당자*(9명) 및 협의회 위원**(12명) 등 총 21명
* 디지털융합심사국장, 인공지능심사과장, 특허심사제도 담당 및 AI개정 TF 등
** 대기업 4명, 중소벤처기업 7명 및 학계 1명 참석, 간담회에 불참하는 협의회 회원은 온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안건 공유

□ 세부 일정(안)

시 각	주요 내용
14:00 ~ 14:05 (5')	인사말씀
14:05 ~ 14:15 (10')	AI 특허 동향(AI Index)
14:15 ~ 14:45 (30')	국내외 심사기준 동향 및 사례
14:45 ~ 15:45 (60')	참석자 자유 토론 (심사기준 개정 요청, 출원·심사 애로사항)
15:45 ~ 15:55 (10')	협의내용 정리·공유
15:55 ~ 16:00 (5')	마무리 말씀 및 종료